

2023 젊은건축가상 심사평

2023 젊은건축가상 심사총평 (이민아)

젊은건축가상이 건축물이나 설계안이 아닌 건축가에게 수여하는 상이라는 점에서 매해 건축계는 어려운 공동숙제를 정성스럽게 치르고 있다. 자신의 면허로 준공된 작품이 있는, 기준연령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하는 상이지만 심사 과정에서 더 알아버린 건축가, 이른바 ‘사람’의 종합적 역량과 서사에 의해 심사위원들은 심사숙고에 빠졌다. 우리가 ‘건축가’로 정해놓은 심사 대상의 총체에 그들이 편집해 보여주는 이미지, 텍스트 너머 건축가의 정신도 포함된다면 그건 감히 기성 건축가가 어떻게 짐작하겠느냐는 심사위원들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보려고도 애썼다. 46개 지원팀 중 절반은 이미 올해가 처음은 아니고, 다회차 지원자들도 적지 않으니, 수상의 의미보다 도전 자체의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했고, 혹시 지원 준비가 매해 자신의 주요 과제가 된 것은 아닌지 공연한 우려도 있었다.

46팀 포트폴리오들간의 두드러진 대별은, 소규모 민간 프로젝트 위주 작업, 중소규모 공공프로젝트 위주 작업으로 갈린다는 것. 그럼에도 프로젝트 수주에는 저간의 사정과 방식이 있고 건축가가 일관되게 천착하는 지점은 고유하게 드러나므로 심사의 그 어떤 기준도 발주유형에 따른 프로젝트 여건과는 무관했다. 물론 공공프로젝트 수행에는 대부분 시간이 설계를 위해서보다 심의, 인증, 보고 등에 소요되고, 공사비, 시공자 수준 등 여건의 한계로 ‘이 정도로도 대단한’의 가점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부족함을 도리어 인정하는 격이다. 소규모 민간 발주 건축물과 같은 체급으로 비교하기 어려우니, 이는 공공건축상 제도의 역할이기도 하다. 건축가를 선정하는 이 상은 작품의 완성도 자체에는 다소 관대해도 좋은가 역시 당해 지원자 간의 상대평가에 의해 기준이 달라질 것이다. 또한 프로젝트 자체의 선량함과 공공성이 건축가 평가의 지표가 되지 않도록 유의했다.

올해 지원자의 공통된 특징으로, 건축가의 관심이 ‘건축’ 자체에 집중되어 있고, 도시, 설치, 전시, 출판, 가구 등 건축 밖으로 시선을 확장한 건축가는 소수에 불과했다. 아직은 건축설계만이 가장 재밌는 순도(?) 높은 건축가 집단의 등장이다. 또한 작업을 설명하는 서술구조가 매우 유사한데 거창하고 모호한 관념론이 아닌, 건축주를 어떻게 만나 어떤 각별한 과정을 거쳤는가를 소박한 문체로 길게 나열하는 설명 방식이 트렌드인 듯했고, 그러다 보니 새로운 결점이 드러났다. 필력은 별도의 능력이지만 텍스트가 비문일 경우 보여주는 것 전반에서 신뢰를 얻지 못했다. 결국 건축설계와 글쓰기는 주제, 구조, 공간, 디테일을 다 갖추고 있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고, 특히 건축가를 선정하는 상이라 사유가 언어로 옮겨지는 단계에 개인적으로 큰 관심을 두었다.

8팀을 선정하는 과정에, 심사위원 1명의 표를 얻은 지원자들에 대해서도 무거운 토론을 이어갔고, 이 결정에 심사위원 개인적 성향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짚었다. 새로운 세대의 특성이 전면화된 건축이어서가 아닌, 건축적 사유와 통찰, 실천력이 뛰어난 작가 중 기성의 규범에 편입하지 않은 채 확고히 자신의 언어를 다루고 있는 신인을 선정하는 상이라는 것이 맞는 표현이겠다. 즉 ‘젊기 때문’보다 ‘좋은 작업’이 압도적 전제였다. ‘발굴’과 ‘육성’이 상의 목적이던 시기도 있었지만, 14회 8팀의 포트폴리오에서 우리는 2023년 가장 뜨거운 설계도면을 보았다. 이미지에 현혹될 걱정이 없었던 것은 건강하게 그려진 도면 덕이다. 상의 흥행, 수상자의 다양성 등이 심사 중 잠깐씩 언급되었지만 정작 수상자 3팀은 비슷한 점이 있다. 도면은 왜 그리는가, 건축물에게 시간은 무엇인가, 나는 왜 이 얘기를 하려는가 등 질문들로 자신과의 싸움이 지독했을 것이다.

서자민(아지트스튜디오 건축사사무소)

문제적 도시 현상을 설계 의도를 생성하는 결정적 단서로 단호하게 포섭한다. 그리고 곧장, 너무 '기본적'이라 질문을 게을리해왔던 문제들, 덩어리, 구축, 비움, 양감, 질감, 형태들의 개념을 향해 즐겁게 공격하며 설계로 이행한다. 심사위원 보기에 즐겁고 과감한 결정일 테고, 정작 서자민 본인에게는 유희도 시도도 아닌, 기본의 기본에 천착하는 내면의 본능적 씨름이었을 것이다. 자신의 질문에 대한 명료한 입장을 제시하는 작업 과정은 젊은 건축가의 고유한 네러티브를 넘어 기성 건축계의 어찌면 빈궁한 담론에 반한 원초적 물음을 던진다. 특유한 조형성을 못생김의 미학으로 언어화하여 집착을 덜어내는 태도는 건축가 내면에서 충돌하는 논리와 형태의 간극을 보여준다. 건축가의 직관적인 미감이 건축물 형태에 마지막으로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고 어찌면 소위 완성도라 일컫는 지점을 끝내는 무기가 될 텐데, 미학적 측면엔 초연했다는 발언은 아쉽다. 어떤 면에서 가장 감각적인 화면의 포트폴리오를 제출한 지원자로 젊은 건축가에게 시대가 기대하는 덕목에 이 또한 결코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김진휴+남호진(건축사사무소 김남)

건축에서의 아름다움을 심사에서 질문했고 답을 들었다. 이 일이 벌어진 것만으로 두 사람 건축은 의미있다. 추천 아닌 자천으로 참가하는 상의 성격상 고도의 자기예찬 전략이 필수라면 두 사람은 별로 신경을 못 쓴 듯 도리어 모두가 회피하는 건축의 아름다움을 읊었다. 아름다움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정확한 구조와 치밀한 기술적 해결, 엄격한 시각적 완성도에 의지하는 개념임을 환기시키면서도 표피적이고 관성적인 결정은 끼어들 틈 없음을 강조한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정의하고 치열하게 구조화하여, 시공자의 수고, 사용자의 기쁨, 건축가 스스로의 검열이 동반될 때 비로소 아름다움에 이르는 길에 당도했음을 성찰하는 태도로 '결국 건축가는 무엇에 헌신하는 사람인가'의 질문을 강력히 던지고 있다. 두 사람의 건축은 인간과 주변을 사색하는 일에서 시작하여, '아름다움'보다 실은 훨씬 어려운 '윤리적' 건축의 실천을 위해 부단히 노력 중임을 목격했다.

김영수(모어레스 건축사사무소)

재료 본연의 성질, 건축 요소의 자리, 사물과 공간의 관계 등 건축 본질에 대한 집요한 탐색과 사유 과정이 건축가 개인의 지적감수성(intellectual sensitivity)에서 비롯된 태도를 넘어 젊은 건축가상의 당대성과 미래적 역할에 방향타가 될 만한 유의미한 모습으로 전달됐다. 심사를 하면서 과연 이들에게 건축이 고통스럽지 않고 즐겁다면 지속가능한 내적 영역이 강건하게 있는가를 추측해 보았고, 대표적으로 김영수가 그랬다. 엄격하게 조정된 공간의 형태, 재료의 두께, 빛의 강도를 현장에서 섬세하게 통솔하여 완성도 높은 건축물로 실현해 가는 과정 속에 건축가 특유의 오기와 환희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비평이 즐겁고 균형 있게 자리 잡혀 있음이 엿보였다. 특별히 '단면적 공간'을 지극히 신중히 해설하는 젊은 건축가를 만난 것은 본질론에서 이미 멀리 떠나있는 채, 건축의 힘듦에 대한 궁색한 핑계거리들로 보호받고 싶어 했던 기성건축가로서 행운이다. 심사위원들은 전원일치로 김영수를 올해의 주목할 건축가로 선정했다.

심사위원장 이민아

2023 젊은건축가상 심사평 (김동진)

김영수(모어레스 건축사사무소)

공간 간의 관계와 위계를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느슨한 질서'를 가져오는 '조정선'을 통해 이성적 구축을 시도한다. 이는 설계과정에서 기하학적인 수적 비례를 조율하는 이성적인 잣대로 작동하면서, 동시에 감각적인 질감의 변화를 통해 무더진 감성을 회복하는 장소를 만드는 장치가 된다.

이성적 구축의 질서를 느슨하게 만드는 이러한 시도는, 공간자체가 갖는 힘을 바탕으로 '무용한 것'에 가치를 더하며 감성적 장소로 태어나게 한다.

김진휴+남호진(건축사사무소 김남)

작고 사소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건축적 상상을 통해, 설계과정 속에서 치밀하게 몰입되면서 스스로에게 풀어야 할 과제로 던져진다.

집요하게 고민하는 반복의 과정이 힘겹지만, 어렵게 달성되기에 아름답다.

멈추지 않는 상상과 스스로에게 내주는 버거운 숙제는 이들의 건축을 끌고 가는 고유한 힘이다.

서자민(아지트스튜디오 건축사사무소)

불필요함을 제거하며 명료함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툭 던져진 듯' 러프한 형태는 자신의 의도를 끝까지 끌고 가는 치밀함과 용기의 성과물이다.

도시, 사회적 관찰로부터 디테일까지, 텍토닉의 일관성은 끝까지 의도를 구현하려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건축적 내러티브를 만들어 나간다.

심사위원 김동진

2023 젊은건축가상 심사평 (양수인)

지난 몇 년간의 호황을 증명이라도 하듯, 많은 건축가들이 지원했다. 지원자들은 각기 다른 방향성을 갖고 다양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기에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내 깨달았지만,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 대전제는 수년 전 젊은 건축가상 심사를 관망하러 갔을 때 처럼 젊은 건축가의 좌충우돌기를 격려하는 식의 평가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어느정도 좌충우돌이 있어야 마련이지만, 그것이 '젊음'을 정의할 수 없고, 더욱이 미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젊지만 노련하고, 젊지만 성공적인 수 많은 건축가들이 눈 앞에 있었다.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1차 심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원자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눈에 띄는 팀을 찾게 됐다.

1. 규격화 이전의 상태: '젊은'을 벗어난다는 것은 노련해 진다는 의미다. 숙련되어 효율화된 소위 기성건축가가 안정되게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규격화(라고 쓰고 보수화라고 읽는다)가 필수라고 생각한다. 어떤 지원자들에게서는 아직 자신만의 규격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에 자연스레 새롭고 신선한 해법을 탐구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젊은 건축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했다.
2. 일관성 있는 방향: 몇 개의 작업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자의 지금까지의 커리어를 심사하는 것이기에 발표장에서 보여지는 포트폴리오 이전의 작업도 꼼꼼히 찾아보았다. 다양한 건축 및 대중매체, 사무실의 홈페이지, 인스타그램등을 통해 발표된 작업을 살펴보았을 때, 일관성있는 건축관을 갖고 작업을 하며, 수년간 지속가능하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팀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 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하기에 높게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3. 완성도 높은 결과물: '젊은'이라는 가산점을 주고 평가하지 않더라도 작업과정과 결과물의 완성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팀은 특별히 다른 기준이 필요치 않았다.

서자민(아지트스튜디오 건축사사무소)

타 수상자에 비해 지금까지 실현한 건축물의 양이나 개별 작업의 완성도는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서자민 건축가가 작업 및 공개심사에서 보여준 자신감과 패기, 건축을 대하는 진중하면서도 유연한 자세, 명확하고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이 상을 통해 발굴하고자 하는 젊은건축가의 모습을 가장 정확히 보여준다. 앞으로의 성장이 가장 기대되는 수상자이다.

김진휴+남호진(건축사사무소 김남)

어떤 것들은 한참 보아야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데, 김남이 걸어온 건축의 길이 그러하다. 김남의 건물에 녹아 있는 사용자에게 대한 진심어린 배려는 때로 한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 섬세한 재료의 사용이나 합리적이면서도 재미있는 구조적 해법은 화려한 외관보다 알아채기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스스로 아름다움이라 부르는, 단순한 예쁨을 넘어서는 가치를 추구하는 이들의 건축에는 연륜에서 나오는 깊이와는 다른 젊은 깊이가 있다.

김영수(모어레스 건축사사무소)

젊은 건축가다운 에너지와 집요한 태도 뿐 아니라 계획 및 실현에 있어서 높은 완성도의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건축적인 방법론 뿐 아니라 앞으로 건축가로서의 성장에 있어서도 자신의 강점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방향성이 엿보이는 바, 지속가능한 건축사무소를 만들어가고 양질의 작업을 계속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에필로그

46팀의 건축가들이 선보인 엄청난 양의 완공작들은 확실히 상향평준화 되어 있었다. 하지만 질적 상향이 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여러측면의 평준화라는 아쉬움이 눈에 띄인 것이 사실이다. 출품된 작업의 규모나 용도(주택/스튜디오, 근생/카페)뿐 아니라 작업하는 방식도 단지 나이가 어릴뿐, 기성건축가와 그리 달라보이지는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국 젊은 건축가의 춘추전국시대 같은 재미있는 시기임이 분명해 보이는 한 편, 바로 건물을 지으며 동시에 자본시장에 진입해야하는 상황이 낯은 한계도 분명해 보였다. 호황기를 넘어서신 지금 작업을 시작하는 젊은 건축가들이 본격적으로 응모를 하게되는 몇 년 후에는 과연 조금 더 다양한 '젊음'이 전개될 수 있을것인지 궁금해진다.

심사위원 양수인

2023 젊은건축가상 심사평 (이규상)

김진휴+남호진(건축사사무소 김남)

우리들은 원초적인 기억을 이야기하려하나 상황은 늘 어려움의 연속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작은 부분이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으나 미래를 기대하게 한다.

김영수(모어레스 건축사사무소)

건축을 대하는 진지함과 완성도가 뛰어나며, 자신만의 건축공간의 지향점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롭게 들렸다. 특히 현실의 여러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가진 능력을 적용하려는 미래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모습이 젊은 건축가로서 하나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서자민(아지트스튜디오 건축사사무소)

건축가는 덩어리와 못생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무던한 듯 놓여있는 작품 속에는 각각의 작업의 의미를 규정하고 이를 세심하게 또는 묵직하게 자신의 건축언어로 만들어가는 과정과, 얼핏 드러나는 진중하지만은 않은 재기발랄함이 공존하며 젊은 건축가로써의 가능성을 느끼게 해준다.

심사위원 이규상

2023 젊은건축가상 심사평 (정웅식)

젊은 건축가상 심사 제안을 받았을 때 진중한 긴장과 조용한 설레임이 나를 잠식했다. 몇 해 전에 참가자로 참석했을 때 보다 훨씬 많은 마음의 부담감이었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수많은 동시대의 젊은 건축가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들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대감과 동시에 결국 누군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중압감 때문이다. 참가자 모두가 가지는 각자의 열정과 노력을 알기 때문에 어느 건축가의 포트폴리오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었다. 1차와 2차의 심사과정 속에서 이 시대의 젊은 건축가들이 어떤 모습에 더 공감하고 젊음의 시간 속에서 가져야 할 건축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 던진 시간이었다.

김진휴+남호진(건축사사무소 김남)

건축가 김진휴와 남호진의 건축은 시대정신이 담긴 마음으로 형성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건축의 구축적 태도에서 선한 건축을 정직하게 풀어낸다. 호숫가의 집은 초기작인 스위스의 Chalet à Pracondu에서 보여준 사물의 관계 맺음과 공간의 나열방식이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여 일관성 있게 그들의 작업에 꾸준히 탐구되며 발현되고 있는 모습이 진정으로 아름답다.

김영수(모어레스 건축사사무소)

건축가 김영수는 감성을 이성으로 표현하고 이성을 감성으로 구축하는 건축가이다. 인간이 감성과 이성을 절제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인내와 고뇌가 필요한 것처럼 그의 건축이 만들어 내는 이성과 감성의 절제들은 놀라울 만큼 가슴 울리는 낭만의 질서들을 만들어 낸다. 감성은 비례에서, 이성은 디테일에서 서로의 느슨한 관계들을 만들며 그의 완성도 높은 건축 존재를 느끼게 한다.

서자민(아지트스튜디오 건축사사무소)

건축가 서자민은 무엇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원초적인 흙덩어리와 같은 건축가이다. 투박한 그의 의도들은 과감한 용기를 통하여 새로운 건축적 해석으로 재탄생되었다.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하나의 덩어리로 통합한 텍토닉은 건축이 건축가에게 말을 건 것 같은 강력함이 있다. 젊은 아지트에서 생성되는 거친 에너지가 일반적 건축 언어를 특별하게 만드는 그의 미래적 내러티브로 발현되어 성장 되어지길 기대한다.

비록 이번 기회에 수상하지 못한 팀들의 목소리와 시대적 담론에도 마음의 여운이 계속해서 남아 있다. 조경빈은 건축의 구축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여 합리적 치열함으로 순간의 시적 차이를 만들어 내는 진중한 모습이 아름다웠다. 유준상은 다양한 재료가 가지는 새로움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한국 건축의 혹독한 현실적 상황 속에서 단련시키고 소통하는 건축과정을 전략으로 만들어 가는 살아 숨 쉬는 전략 건축가다운 모습이었다. 이기철은 한국 건축의 단상인 심각한 지역건축의 빈곤함 속에서 그 지역의 특성을 탐구하고 자신의 건축언어로 발전시켜 가는 모습을 통하여 이미 지역을 뛰어 넘는 자신의 완성도 높은 건축 영역을 구축하였다. 한지영과 황수영은 자칫 비슷한 건축의 언어로 통합 및 보편화 되어가는 우리의 건축 현상 속에서 구조라는 영역의 탐구와 집요함을 통하여 자신들만의 탐험적 세계를 만들어 가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이성범과 고영성은 건축의 솔직한 속성인 드러냄을 지붕의 재해석을 통하여 창의성 있는 해법으로 발견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가능성을 만들어낸 건축가 팀이다.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들이 존재하는 한국 건축의 생태계가 지속 가능한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미래 풍경이 되길 사뭇 기대한다.

심사위원 정웅식